



[대한국사-윤승규]

2016년 서울시 9급 한국사 해설

(A형)

문제 및 해설

문 1. 다음 자료와 관련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풍속에 장마와 가뭄이 연이어 오곡이 익지 않을 때, 그 때마다 왕에게 허물을 돌려 왕을 마땅히 바꾸어야 한다. 라거나 혹은 왕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라고 하였다.
- 정월에 지내는 제천 행사는 국중 대회로 날마다 마시고 먹고 노래하고 춤추는데 그 이름은 영고라 한다.

- 『삼국지』 위서 동이전 -

- ① 풍화 강 유역의 평야 지대에서 성장하였다.
- ② 왕 아래 가축의 이름을 딴 여러 가(加)들이 있었다.
- ③ 왕이 죽으면 노비 등을 함께 묻는 순장의 풍습이 있었다.
- ④ 국력이 쇠퇴하여 광개토대왕 때 고구려에 완전 병합되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④

자료의 국가는 부여에 해당한다. 북쪽으로 선비족, 남쪽으로는 고구려와 접하고 있던 부여는 3세기 말인 285년 선비족 모용외가 침입하자 의려왕이 자살하면서 국가적 위기에 봉착하였다. 또한 4세기 경에도 선비족의 재침으로 국력이 극도로 약화되어 세를 회복하지 못하다가 물길족의 침입으로 494년(고구려의 문자명왕 재위기)에 멸망하였다.

오답풀이

- ①, ②, ③ 부여는 풍화강 일대에서 성장하였고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우가·저가·구가 등이 다스리는 사출도가 있었다. 또한 대규모의 순장 풍습이 존재하였다.

문 2. 삼국 간의 경쟁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가) 백제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 (나) 백제 의자왕은 신라의 대야성을 함락시켰다.
- (다) 고구려 광개토대왕은 신라 지역으로 쳐들어온 왜국의 침략을 격퇴하였다.
- (라) 백제는 고구려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수도를 웅진으로 옮겼다.

- ① (나) - (다) - (라) - (가)
- ② (다) - (가) - (라) - (나)
- ③ (다) - (라) - (가) - (나)
- ④ (라) - (다) - (나) - (가)

정답 및 해설

정답 ③

(다)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왜구 격퇴(400) → (라) 백제 개로왕의 전사와 웅진 천도(475) → (가) 백제 성왕의 관산성 전투 전사(554) → (나) 백제 의자왕의 대야성 함락(642)

문 3. 삼국시대의 사상과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여 능산리에서 발견된 백제대향로는 신선이 산다는 봉래산이 조각되어 있어 백제인의 신선사상을 엿볼 수 있다.
- ② 삼국 불교의 윤회설은 왕이나 귀족, 노비는 전생의 업보에 의해 타고났다고 보기 때문에 신분 질서를 정당화하는 관념을 제공하였다.
- ③ 신라 후기 민간사회에서는 주문으로 질병 치료나 자식 출산 등을 기원하는 현실구복적 밀교가 유행하였다.
- ④ 고구려의 겸익은 인도에서 율장을 가지고 돌아온 계율종의 대표적 승려로서 일본 계율종의 성립에도 영향을 주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④

겸익은 고구려가 아닌 백제의 승려로 성왕 시기 인도에서 계율 중심의 불경을 들여와 직접 번역하여 불교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켰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율종이 성립되었다.

오답풀이

- ① 1993년 부여 능산리에서 발견된 백제대향로는 신선이 산다는 봉래산과 용 및 봉황이 조각되어 있어 도교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연잎이 새겨져 있어 불교의 세계관도 함께 접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삼국 불교는 윤회설을 바탕으로 사람의 행위에 따라 업보를 받는다는 업설을 내세웠으며, 이로써 신분 질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왕과 귀족은 선한 공덕을 많이 쌓아 현재의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 ③ 밀교는 민간신앙적 요소와 결합된 대표적 종파로서 삼국 말기에 전래된 것으로 보이며, 주문, 부처 및 비방 등을 사용하여 현세구복적 기능을 강하게 수행하는 특성을 갖는다. 통일 후 당나라가 신라를 침범하려는 기세가 엿보일 때, 명랑이 밀교의 비법을 써서 당의 군사를 무찔렀다고 알려져 있으며, 기층 신앙과 결합하여 고려, 조선까지 일부가 계승되었다.

문 4. 빈칸에 들어갈 왕의 재임 시기에 일어난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발해와 당은 발해 건국 과정에서부터 대립적이었으며 발해의 고구려 영토 회복 정책으로 양국의 대립은 더욱 노골화되었다. 당은 발해를 견제하기 위해 흑수말갈 지역에 흑수주를 설치하고 통치관을 파견하였다. 이러한 당과 흑수말갈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발해의 은 흑수말갈에 대한 정복을 추진하였다. 이 계획을 둘러싼 갈등이 비화되어 발해는 산동 지방의 덩저우에 수군을 보내 공격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당은 발해를 공격하는 한편, 남쪽의 신라를 끌어들여 발해를 제어하려고 하였다.

- ① 3성 6부를 비롯한 중앙 관서를 정비하였다.
- ② 융성한 발해는 해동성국 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 ③ 왕을 황상(皇上) 이라고 칭하여 황제국을 표방하였다.
- ④ 일본에 보낸 외교문서에서 고구려 계승 의식을 천명하였다.

정답 및 해설

정답 ④

흑수말갈 정복을 추진하고 덩저우를 공격한 발해의 왕은 무왕이다. 무왕은 727년 일본도를 개척하여 일본과 수교하는 한편, 외교문서에서 고구려 계승 의식을 드러내 국호를 고려라 칭하기도 하였다.

오답풀이

- ① 3성 6부를 중심으로 중앙 관서를 정비를 정비한 왕은 문왕으로 추정되고 있다(일부 학자들은 선왕설을 주장하기도 한다).
- ② 문왕이 사망한 이후 침체기를 걸던 발해는 선왕 시기에 와서 다시 중흥기를 맞이하였으며, 이후 해동성국이라 불리게 되었다.
- ③ 문왕의 둘째 딸인 정혜공주와 넷째 딸인 정효공주 묘지석에서 황상(문왕)이 매우 슬퍼하였다는 문장이 발견되어 발해가 황제국을 표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문 5. 고려시대의 대장경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장경이란 경(經)·율(律)·논(論) 삼장으로 구성된 불교 경전을 말한다.
- ② 초조대장경의 제작은 거란의 침입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 ③ 의천은 송과 금의 대장경 주석서를 모아 속장경을 편찬하였다.
- ④ 초조대장경과 속장경은 몽골의 침입으로 소실되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③

의천이 만든 <신편제종교장총록>에 의거하여 1092년부터 교장(속장경) 조조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교장은 송·요의 대장경 주석서를 모아 편찬하였다. 여러 나라의 경전을 모아 간행한 초조대장경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경(經)과 논(論)보다는 주소(註疏) 부분을 중심으로 신라와 거란 고승들의 저술을 수록한 것이 특징이다. 의천의 사망 시기는 1101년이고 금의 건국 시기는 1115년이므로, 교장의 편찬은 금과 관련이 없다.



문 6. 다음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가) 김보당의 난 발생
(나) 이의민의 권력 장악
(다) 김사미와 효심의 난 발생
(라) 교정도감의 설치

- ① (가) - (나) - (다) - (라) ② (가) - (나) - (라) - (다)
③ (나) - (가) - (다) - (라) ④ (나) - (가) - (라) - (다)

정답 및 해설

정답 ①

☞ (가) 김보당의 난 발생(1173) : 의종 복위와 문벌 귀족 사회의 부활을 목표로 정중부 집권기에 김보당이 거병하였으나, 실패 → (나) 이의민의 권력 장악(1183) : 정중부를 제거하고 집권한 경대승이 4년 만에 사망하자 권력을 장악 → (다) 김사미와 효심의 난 발생(1193) : 이의민 집권기에 신라 부흥 운동의 기치를 걸고 운문과 초전에서 거병 → (라) 교정도감의 설치(1209) : 최충현의 암살 미수 사건을 계기로 설치, 곧 최고 권력 기관으로 부상

문 7. 고려의 정치와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치제도는 당과 송의 제도를 참고하여 2성 6부제로 정비하였다.
② 지방제도는 5도 양계 및 경기로 구성되었고 태조 때부터 12목을 설치하였다.
③ 관리 등용 제도로는 과거와 음서 등이 있었으며 무과는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
④ 성종 대에 최승로는 시무 28조를 건의하는 등 유교정치 이념의 토대를 닦았다.

정답 및 해설

정답 ②

☞ 현종은 성종 때의 10도 체제를 5도 양계로 정비하고 세부 행정 단위를 4도호부·8목과 경계제 및 군현제로 완비하였다. 12목의 설치는 성종 시기의 일이다.

문 8. 충선왕 대의 개혁 정책으로 옳은 것은?

- ① 원나라 연호와 관제를 폐지하였다.
② 몽골풍의 의복과 변발을 폐지하였다.
③ 왕권을 강화하고 개혁을 주도하기 위한 기구로 사림원을 두었다.
④ 정치도감을 두어 부원 세력을 척결하였다.

정답 및 해설

정답 ③

☞ 충선왕이 설치한 사림원은 한림원을 강화한 기관으로 정방이 맡고 있던 인사행정, 승지방이 맡고 있던 왕명의 출납을 더하여 권력기관화되었으며, 신진 사대부가 관장하였다.

오답풀이

- ①, ② 공민왕, ④ 충목왕 시기의 개혁 정책에 해당한다.

문 9.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있었던 요동정벌 운동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왕 때 최영은 명이 철령위 설치를 통고하자 요동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② 태조 이성계는 요동정벌을 추진하였고 정도전과 남은은 군사 훈련을 강화하였다.
③ 명은 정도전을 조선의 화근이라며 명으로 압송할 것을 요구하였다.
④ 이방원은 태조의 요동정벌 운동을 적극 지지하였다.

정답 및 해설

정답 ④

☞ 조선 건국 이후 명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정도전과 남은을 중심으로 요동 정벌 계획이 추진되었다. 이들은 태조의 동의를 얻어 군량미를 비축하고 병력을 증강해 진도(陣圖)를 바탕으로 훈련을 강화하는 등 요동 정벌을 준비하였다. 1398년 5월 조선에 대해 강경책을 구사했던 명 태조가 죽고, 9월에 1차 왕자의 난으로 정도전이 죽게 되자 명과의 관계가 호전되어 요동 정벌 계획이 모두 일단락되었다. 태종 이방원은 정도전이 요동 정벌 계획의 일환으로 사병 협력을 추진하자 위기의식을 느꼈으며, 이 계획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 결국 이방원은 무인정사(1차 왕자의 난)를 일으켜 정도전을 제거하고 요동 정벌 운동을 중지시켰다.

문 10. 다음 중 영조 대에 편찬된 서적은?

- ① 『동국문헌비고』
② 『동국지리지』
③ 『동사강목』
④ 『동의보감』

정답 및 해설

정답 ①

☞ 영조 시기에 편찬된 서적은 관찬 백과사전인 『동국문헌비고』이다. 1770년에 완성되었다. 체제는 중국 『문헌통고』의 예에 따라 상위(象緯)·여지(輿地)·예·악·병·형·전부(田賦)·재용(財用)·호구·시적·선거·학교·직관(職官)의 13고(考)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정조 시기부터 고종 시기까지 개정 증보되어 『증보문헌비고』로 간행되었다.

오답풀이

- ② 『동국지리지』(1615)는 광해군 시기에 한백겸에 의해 저술된 최초의 역사 지리서이다. 이 책은 이후 간행된 역사 지리서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③ 『동사강목』(1778)은 정조 재위기에 안경복이 편찬한 역사서이다. 3한 정통론을 내세워 한국사를 체계화하였으며, 도덕적으로 정당성을 결여한 국가는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정통사상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④ 『동의보감』(1613)은 광해군 재위기에 허준에 의해 편찬된 의서이다. 예방 의학의 성격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으며, 신체에 관한 내용을 안팎으로 나누어 신체 내부와 관련된 내용을 「내경편」에, 신체 외부와 관련된 내용을 「외형편」에 두었다. 신체 관련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병 이론과 구체적인 병 내용은 「잡병편」에 묶였다. 「탕액편」은 가장 주요한 치료수단인 약에 관한 이론과 구체적인 약물에 관한 각종 지식을 실었고, 「침구편」은 또 하나의 치료수단인 침·뜸의 이론과 실재를 다뤘다.

문 11. 조선 전기 일본과 관계된 주요 사건이다. (가)~(라) 각 시기에 있었던 사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92	1419	1510	1592	
	(가)	(나)	(다)	(라)
조선 건국	쓰시마 토벌	3포왜란	임진왜란	

- ① (가) : 부산포, 제포, 염포 등 3포를 개항하였다.
② (나) : 계해약조를 체결하여 쓰시마 주의 제한적 무역을 허락하였다.
③ (다) : 왜선이 침입하여 을묘왜변을 일으켰다.
④ (라) : 조선은 포로의 송환 교섭을 위해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정답 및 해설

정답 ①

☞ 부산포, 제포, 염포 등 3포를 모두 개항한 시점은 세종 8년(1426)으로 쓰시마 토벌 이후의 일이다. 1407년(태종 7)에 부산포와 제포(내리포)를 개항하였고, 1426년(세종 8)에는 또다시 염포까지 개항하였다.

문 12. 다음 (가)~(다)의 설명에 해당하는 인물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가) 스승 이벽의 권유로 북경에 갔다가 서양인 신부의 세례를 받고 귀국하였다.
(나) 성리학의 입장에서 천주교를 비판하는 『천학문답』을 저술하였다.
(다) 신부가 되어 충청도 당진(솔피)을 근거로 포교하다가 붙잡혀 처형되었다.

(가)	(나)	(다)
① 이가환	안정복	황사영
② 이승훈	이기경	황사영
③ 이승훈	안정복	김대건
④ 이가환	이기경	김대건

정답 및 해설

정답 ③

☞ 이승훈은 이벽의 권유로 천주교에 입교하였으며, 여러 차례의 배교와 재 입교 끝에 신유박해(1801)로 사형 당하였다. 안정복은 이익의 제자로 천주교를 배척하는 공서파의 대표 인물이었다. 그는 『천학문답』, 『천학고』를 저술하여 천주교를 비판하였다. 김대건은 최초의 신부가 되었으며, 1846년에 순교하였다.



- ① 송수만, 심상진은 대한자강회를 조직하고 일본의 황무지 개척에 반발하는 운동을 전개하여 이를 철화시켰다.
- ② 이종일은 순한글로 간행한 황성신문을 발간하여 정치 논설보다 일반 대중을 위한 사회계몽 기사를 많이 실었다.
- ③ 최남선은 을지문덕, 강감찬, 최영, 이순신 등의 애국 명장에 관한 전기를 써서 애국심을 고취하였다.
- ④ 고종은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폭로하는 친서를 양기탁과 영국인 베델의 대한매일신보를 통하여 발표하였다.

고종은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폭로하는 친서를 대한제일신보를 통하여 발표하는 한편, 험버트를 미국에 파견하여, 미국의 협조를 얻고자 하였다. 또한 헤이그에 이상설, 이준, 이위중 등 특사를 파견하여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세계에 알리고 국권을 수호하고자 하였다.

- ① 송수만, 심상진이 일본의 황무지 개척권 요구를 거부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는 보안회이다.
- ② 이종일이 순한글로 간행한 신문은 제국신문이다.
- ③ 을지문덕, 최영, 이순신 등의 애국 명장에 관한 전기는 신채호가, 감각찬에 대한 전기는 우기선이 집필하였다.

고종이 황제 즉위식을 거행한 장소는 환구단이다. 제천행사를 치르는 원구단 및 환구단과 같은 제단은 고려에 이어 조선에도 계승되었으나, 중기 이후 논의를 거쳐 제후국의 위상을 고려한다는 취지에서 폐지되었다. 고종은 1897년(광무 1) 대한제국의 황제로 즉위하면서 환구단을 다시 건립하여 예를 치르고 경운궁(덕수궁)에서 집정하였다.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유리해지자 황무지 개척권을 철회하는 대신 고문관의 초빙을 대한제국에 강요하였다. 이에 따라 하야시와 윤치호 사이에 3개조의 1차 한·일 협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은 본래 재정과 외교 부문에만 고문이 파견되도록 약속되었지만, 곧 그 외의 다양한 부서에도 고문이 파견되었다.

- ① 한일 의정서는 대한제국의 자주 독립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빌미로 시정 개선과 군사적 요지 사용권을 획득한 조약이다.
- ③ 제2차 한일 협약(을사늑약)은 군대를 동원한 무력시위 속에서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 설치를 강요한 강제성을 띤 것이었다.
- ④ 한일 신협약(정미7조약)은 국가의 법령 제정·주요 행정처분·고등관리 임면과 관련한 사안들에 대해 통감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한국의 내정과 관련된 모든 국권을 찬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① 박영효 ② 유치호 ③ 김옥균 ④ 김홍집

약력에 해당하는 인물은 박영효이다. 박영효는 철종의 부마로 갑신정변에 주역으로 참여하였으며, 한성순보의 장간에 공헌하기도 하였다. 2차 갑오개혁에 참여하여 이를 주도하기도 하였으나, 민씨 정권의 견제로 곧 망명하였다. 1910년 한일병합 이후 친일파가 되어 일제의 통치에 순응하였다. 1932년 일본귀족원의원을 지냈으며, 1939년 중추원부사장 제직 중 죽었다.

- ㄱ.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 설치
- ㄴ. 농지 개혁법 시행
- ㄷ. 안두희의 김구 암살
- ㄹ. 제주 4·3 사건 발생
- ㅁ. 여수·순천 10·19 사건 발생

- 정부 수립은 1948년 8월 15일이며, 이후에 일어난 사건은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위원회 설치(1948. 10), 여수·순천 10·19 사건 발생(1948. 10), 농지 개혁법 시행(1949년 6월 제정, 1950년에 실시), 안두희의 김구 암살(1949. 6)이다.

ㄷ. 제주 4·3 사건 발생(1948. 4)은 정부 수립 이전에 일어난 사건에 해당한다.

- ① 이승만 정권은 1951년 국민회, 대한청년당, 노동총연맹, 농민총연맹, 대한부인회 등 우익단체를 토대로 자유당을 조직하였다.
- ② 이승만 정권은 신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고 반공청년단을 조직하였으며 진보당의 조봉암을 간첩 혐의로 사형에 처하였다.
- ③ 미국의 원조로 소비재 공업이 성장하였고 밀가루, 설탕, 면화 산업 등 삼백산업이 중심을 이루었다.
- ④ 이승만 정권은 1954년 의회에서 부결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사사오입의 논리로 통과시켰다.

6.25 전쟁 중인 1952년 임시 수도 부산에서 이범석의 민족청년단을 중심으로 자유당이 조직되고,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 추진 강행으로 부산 정치 파동이 일어났다. 이 시기에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소위 ‘발췌 개헌안’을 경찰의 삼엄한 포위 속에서 기밀표결로 통과시켰다. 사사오입 개헌은 1954년에 추진된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 폐지를 골자로 한 것이었다.

만약 지주가 정해진 기한 내에 조사국 혹은 조사국 출장소원에게 신고 제출을 게을리 하거나 신고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는 당국에서 이 토지에 대해 지주의 소유권 유무 등을 심사하여 만약 소유자로 인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토지를 지주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연히 국유지로 편입하는 수단을 집행할 것이니, 일반 토지 소유자는 고시에 의한 신고 제출을 게을리 하지 말도록 하였다.

- 「매일신보」 -

- ① 소위권 분쟁을 인정하지 않아 분쟁은 발생하지 않았다.
- ② 명의상의 주인을 내세우기 어려운 동종·문종 토지의 상당 부분이 조선 총독부의 소유가 되었다.
- ③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된 직후 신속하게 사업이 시작되었다.
- ④ 사업의 결과 조선 총독부의 재정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1912년부터 1918년까지 추진된 토지 조사 사업의 조사 대상은 토지 소유권·지형·지목·토지의 가격이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를 해야 하는 기간부 신고제로, 증거주의와 신고주의 원칙에 의해 이루어졌다. 토지 조사 사업은 농민의 경작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신고를 하지 않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의한 소유권 분쟁이 크게 일어났다.



문 20. 다음 사건들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가) 김영삼 신민당 당수 국회 제명
- (나) 김대중 납치 사건 발생
- (다) 유신 헌법의 국민투표 통과
- (라) 국민교육헌장 제정
- (마) 7·4 남북 공동 성명 발표

- ① (라) - (마) - (다) - (가) - (나)
- ② (라) - (마) - (다) - (나) - (가)
- ③ (마) - (다) - (라) - (가) - (나)
- ④ (마) - (다) - (라) - (나) - (가)

정답 및 해설

정답 ②

 (라) 국민교육헌장 제정(1968. 12) → (마) 7·4 남북 공동 성명 발표(1972. 7) →
(다) 유신 헌법의 국민투표 통과(1972. 11) → (나) 김대중 납치 사건 발생(1973. 8)
→ (가) 김영삼 신민당 당수 국회 제명(1979. 10)